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어지러이 가지마라.
오늘 나의 발자취는
후인들의 길잡이가 될지니..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공지사항 ◀

● 불타 예술제 안내

4월 12일 불타 예술제 1차 리허설

5월 3일 불타 예술제 2차 리허설

5월 16일 불타 예술제 - 오후 7시 30분 관음전

● 봉축법요식

5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관음전

※ 초과일 연등 \$100, 영가등 \$ 50, 사업등(형편껏).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저녁 8:00-9:30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0:50, 오후 2:00-3:00

● 영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 불교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2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참선수행: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4월 12일 제 35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큰스님 말씀

고요한 달밤에 거문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
맑은 새벽에 고요히 향을 사르고
산창(山窓)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아니 외어도 좋다.
봄 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
귀족도 울음을 귀에 담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어도 좋다.
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화분을 적시며
난(蘭) 앞에 손질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람을 베개하고
바위에서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道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야점사양(野店斜陽)에 길 가다가 술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 海眼 대종사 -

근본 깨달아 좋은 인연 마련해야

해안 큰스님(海眼 鳳秀 1901-1974)

해안(海眼)스님은 1901년 3월 7일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修學)한 스님은 1914년 변산 내소사에서 만허(滿虛)스님과 인연을 맺으며 출가했다. 1917년에는 백양사에서 만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이후 백양사 광성의숙과 지방학림을 거쳐 불교중앙학림에서 불학(佛學)을 연찬했다.

스님은 1925년부터 2년간 북경대 불교학을 공부했다. 내소사 주지와 금산사 주지, 서래선림 조실 등을 거치며 후학을 양성했고, 1969년에는 불교전등회(佛教傳燈會) 대종사로 추대돼 많은 불자를 인도(引導)했다. 36하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불교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세상에 오고 가는 일이 다 인연(因緣) 때문이니,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속세(宿世)의 인연으로 금생에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물은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생겨날 인과 연의 상대가 서로 결합하여 나고 변화하는 질서를 갖습니다.

잘살고 못사는 현실이 다 속세로부터 연속되는 인과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 인과를 알고 인과의 주인공인 자기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잘 쓰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근본과 현실의 원인을 깨달아 잘살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마련하는 데 불교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1972년 1월 서래선림에서 스님은 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진하면서 경계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참으로 발심해서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졸음이나 망상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몸의 피로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금 견처(見處)가 달라진 것을 가지고 일을 다 마친 것으로 착각하고 공부를 중단하는 폐단입니다. 이거야말로 병중의 큰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은 “발심은 불조(佛祖)의 어머니요 공덕의 탐”이라면서 “발심은 철저한 신심을 낳게 하니 신심은 불과(佛果)를 이루는 근본이 된다.”고 발심의 공덕을 설명한바 있다.

해안스님이 바라 본 깨달음의 경지는 무엇일까.

스님은 정각(正覺)의 자리에 대해 이렇게 일렀다. “깨달으면 천하가 화평하고 미혹하면 자기 한 몸도 불안하며, 깨달으면 천지가 걸림이 없고 미혹하면 일마다 뒤바뀝니다. 천하가 화평하면 인류가 공존하고, 자기가 불안하면 만방이 다 두려우며, 천지에 걸림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극락세계요, 일마다 뒤바뀌면 가는 곳마다 모두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나를 잊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불심(佛心)”이라며 마음찾기를 당부한 스님은 1974년 음력 3월 9일 서래선림에서 입적했다. 세수 74세. 법랍 57년이였다.

열반 직전에 제자들의 간청으로 남긴 스님의 열반송이다.

생사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生死不到處)
하나의 세계가 따로 있다네(別唯一世界)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자(垢衣方落盡)
비로소 밝은 달 훤히 때로다(正是月明時)”

